

'12회 광주상공대상' 이영웅 회장 등 5명 영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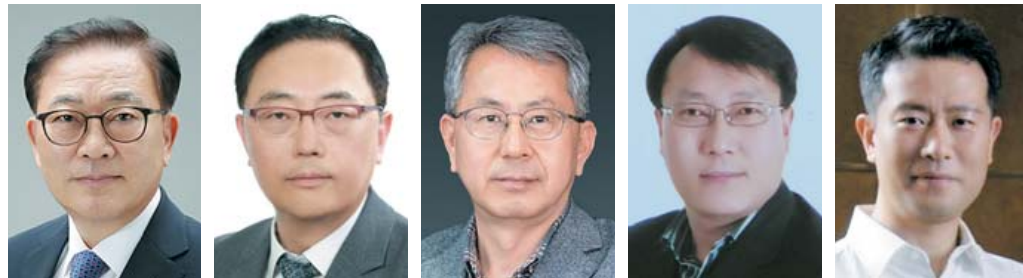
광주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가 '제12회 광주상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광주상회는 17일 제12회 광주상공대상에 ▲경영우수부문 이영웅 ㈜리젠시빌주택 회장 ▲고용우수부문 문재웅 기아㈜ 오토랜드광주 공장장 ▲기술혁신부문 유구현 ㈜한국소리축 대표이사 ▲지역공헌부문 박준희 씨제이제일제당㈜ 호남지사장 ▲노사상생부문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상공대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를 발굴·표창, 그간의 공로를 널리 알려 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광주상회는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12인도 뽑았으며, 오는 20일 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상공대상 시상식 및 표창을 수여한다.

경영우수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은 이영웅 회장은 지난 2011년 ㈜리젠시빌주택을 설립해 '고객이 원하는 집', '나만의 쉼터', '살기 좋은 집'을 짓는다는 경영 철학으로 2016년 '리젠시빌란트(RANTT)'라는 브랜드 아파트 보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을뿐만 아니라 2022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배, 영업이익은 약 27배 증가하는 등 탁월한 경영 성과를 달성한 점



이영웅 문재웅 유구현 박준희 양우천

광주상의, 경영우수 등 5개 부문 수상자 선정·발표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12인도...오는 20일 시상식

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우수부문 문재웅 기아㈜ 오토랜드광주 공장장은 33년간 기아에 재직하면서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맞춰 발 빠른 투자 개발 수립을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해 왔고, 전직적 생산 혁신과 생산 기획으로 2013년 5천800여명이던 광주공장 근무 인력이 10여년만에 7천여명으로 증가하는 데 일조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술혁신부문 유구현 ㈜한국소리축 대표이

사는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최고의 품질 수준을 구현함으로써 ㈜한국소리축을 국내 최대 특장차 및 가변축 제작업체로 성장시켰고, 가변축 업계 최초로 45t 이상 트럭에 적재물 하중에 따라 가변축이 움직이는 '자동가변축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그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역공헌부문 박준희 씨제이제일제당㈜ 호남지사장은 2021년 호남지사 총괄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최근 3년간 지역에 기여한 금액이 7억

원 상당으로 지역과의 상생에 앞장선 데다,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제안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이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꿈키움 아카데미'를 지원하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노사상생부문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은 2019년 공장장 취임 이래 보양데이, 청산 릴레이 행사 등 다양한 근로 복지제도를 발굴하고 노사 상생의 문화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매년 적극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 앞장서고 있을뿐만 아니라 협력적 노사관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근 3년 연속 무분규사업장을 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 공장장은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 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상회는 장기근속 모범근로자로 ㈜다목적하우즈 진수연 부사장 등 12인도 선정했다.

장기근속 모범근로자는 기업체 임직원 중 10년 이상 근속하고, 업무 개선 및 기술 개발 제안을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자로 공모 후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임재민기자

최종학 영광농협 경제본부장 제29회 농업인의 날 정부포상



영광농협은 "최종학(사진) 경제본부장이 최근 제29회 농업인의 날(11월11일)을 맞아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본부장은 지난 1991년 농협에 입사해 상무,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33년간 농업, 농촌에 헌신한 '농협역사의 산증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맥류건조저장시설, 콩 선별처리시스템 등을 구축했으며,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및 지자체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 등에도 힘써왔다.

최종학 본부장은 "이번 수훈은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준 결실인 만큼 앞으로도 농업, 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기자



담양군의회, 전·현직 의원 간담회

담양군의회는 "최근 담양리조트에서 전·현직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정 발전을 위한 의기 투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9대 후반기 의정단을 비롯한 현직 의원들과 전직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군 현안과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은 "의회 바깥에서도 담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배 의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기 위해 조출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담양군의회가 일침하는 의회, 혁신의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여수경찰,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여수경찰서는 17일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최근 여수 거북선공원 일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여수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3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 현장에는 이동 상담소를 설치해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법을 홍보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상담했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가정폭력 노출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모임

▲담양곡성타임스 창간 16주년 기념식(발행인 한명석, 편집국장 정종대)=25일(화) 오후 3시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성길 200 담양리조트 2층 대연회장(송강홀). 010-3612-0521.

결혼

▲김승수·최초자씨 아들 인천군, 박태희(대성정밀 대표)·정성욱씨 딸 보람양=23일(토) 낮 12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062) 710-4000, 010-9190-1866.

▲이준·박인숙씨 장남 은식군, 이용화·이선양씨 장녀 예은양=24일(일) 낮 12시 광주 광산구 양방울대로 549(도천동 147-29) 드메르웨딩홀 2층 베일리홀. (062) 228-0000, 010-3647-9902.



국제위러브유, 광주 서구에 난방기기 기탁

유엔(UN) 공보국(DGC·Department of Global Communications) 협력단체인 국제위러브유(회장 장길자·이하 위러브유)는 최근 광주 서구청에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난방기기를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위러브유가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하는 '2024 따뜻한 겨울맞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온열매트 53개를 전달했다.

최병은 지부장은 "이웃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머니 사랑'으로 돕고자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남인 서구 부구청장은 "위러브

유엔본부에서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온열매트도 꼭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겨울맞이 지원사업은 관공서와 협의해 관내 다문화가족, 홀몸어르신,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부분을 돕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단열작업,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등 집수리는 물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기기, 이불, 연탄, 방한물품 키트, 김장김치 등 겨울 대비에 필수적인 품목들을 전달한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 시 거주 기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2024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핵심적인 공로로 인정받은 결과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도가 청년·신혼부부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기획한 전국 최초의 혁신적 주거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에 총 1천호의 신축 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거주자에게 월 임대료 1만원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 시 거주 기

간이 최대 6년 연장되는 결혼·출산 연계형 구조로 설계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소멸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올해 9월 제10회 지방공공기관의 날에도 저출생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은 전남형 만원주택의 가치를 입증한 결과"라며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혁신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기부금 전달식 개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최근 이정선 시교육감, 교대부초 학생자치회 5학년 학생들, 개인 기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교대광주부설초등학교 학생자치회와 정행중씨는 각각 70만원, 500만원 등 총 570만원을 기부했다.

광주교대광주부설초등학교 학생자치회는 학생들과 운영하는 플리마켓 '부초 다이소' 수익금 전액(70만원)을 기부했다.

학생자치회 관계자는 "소액이지만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

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학생들의 작은 마음이 모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인 기부자인 정행중씨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영세업체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아린 학생들과 기부자의 따뜻한 선행에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기기자



전남도, 서울 잠실역서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

전남도는 17일 "지난 15일까지 이틀간 서울 2호선 잠실역과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활성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홍보활동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연말정산에 대비해 수도권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혜택 등을 알렸다.

전남도 연말 감사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는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후 고향사랑예금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기존 답례품 외에 전남쌀을 추가 답례품

으로 증명하는 행사다. 추가 답례품은 2만원 상당의 전남 쌀이다. 해당 쌀은 나누우리쌀, 왕건이탐년쌀, 황도랑쌀, 나비쌀, 수호천사건강미다.

잠실역 행사 현장에서는 김경태 광주전남시도민회 여성회장을 포함한 15명이 고향사랑 캠페인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김경태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남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모금된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등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